



【인물로 본 환경야사(23)】

본지-2294 제정 1회 발행 기념호

# 환경관리인 연합회보

OF KOREA ENVIRONMENTAL MANAGER FEDERATION

4  
1988

## 2천년대 환경계의 마지막 선비

### 故 정영호 박사님을 추억하며(1)



全國環境管理人聯合會

본 회보 1988년 4월호 표지에 모셨던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 이시면서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가입했던 고 정영호 박사님

글 : 박창근(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1 고 정영호 박사님과 필자는 50여 년 전의 인연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8.15 해방 얼마 후인 1947, 48년 당시 필자는 서울 '수송국민학교'(현재 종로구청 자리에 있었고, 6.25한국전쟁 이후, 폐교 되었다.)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집이 지금의 남산 '리라초등학교' 자리로, 당시는 그곳에 '국립경찰전문학교'가 있었고, 바로 그 아래에 '국립과학관'(6.25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불타 버리고, 후에 현 혜화동에 새로 들어섰다.)이 있었는데, 고 정영호 박사님이 그곳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셨다.

그리고 언젠가 이 난에서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근무했던 재사(才士) 고 미승우 선생도 고학생 신분으로 그 과학관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추억을 썼는데, 그렇게 두 분이 6.25한국전쟁 전에 남산에 위치해 있었던 '국립과학관'에 근무했었다.

당시 필자의 망부(亡父)께서 마침 그 '국립경찰학교' 교수로 재직하셔서, 그곳 관사에서 살았었는데, 바로 옆 관사에

전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고 천명기씨(당시,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생)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고 천명기씨의 형님 되시는 고 천세기씨가 그 경찰학교 교수이었다.)

고 정영호 박사님과 필자의 6.25 한국전쟁 전의 인연은 단순히 한동네에 살았었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는다. 내일 모래 70을 바라보는 지금도 매사에 적극적으로야 직성이 풀리는 천성인 필자는 당시 국민학교 5, 6학년이었지만, 그곳 남산 일대(현 '대한적십자사'에서 부터, '국립과학관', '국립경찰학교', '해군국악대' 본부(현, '숭의학교' 자리), 현재의 '한국사도'(케이볼카)와 그 앞의 약수터 그리고 현재의 '남산도서관'과 '식물원' 자리에 있던 '신사'(일제하 일본인의 신을 모신 사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평정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곳 남산에서 갖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한 예로, 아침 일찍 가친께서 약수를 떠오라고 하면, 약수터에 가기 싫어, '경찰학교' 앞에 앉아서, 약수터에서 약수를 떠 갖고 내려오는 애들을 위협해, 그들의 약수를 필자의 주전자에 붓게(강탈)하고, 과학관에서 입장료를 사려는 애들은 먼저, 필자에게 딱지나, 구슬을 상납(?)해야 표를 살 수 있었다.

이런 막강한 힘(?)은 필자의 덩치가 중학생보다 크거나 주먹이 세어서가 아니라, 어찌된 일인지, 필자의 부하들이 대부분 중학생들(그 중에는 고 천명기씨의 친 동생인 고 천봉기씨가 있었는데 당시 경북중학교 2학년으로 필자의 충실한 부하 노릇을 해, 형이 그런 꼴을 보면 봉기씨를 혼을 내곤 했었는데, 고 천명기씨도 이를 기억하셔서, 고인이 보사부장관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필자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옛날(6.25 한국전쟁 전) 시절을 이야기하다, 그 기억을 밑습하시며 웃으셨다.)

하여간 그런 악동 노릇을 하던 어느 날(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 등의 학교를 쉬는 날이나, 토요일 오후) 그 날도 과학관 앞에서 표를 사려는 아이들에게 딱지나, 구슬을 사전 상납을 받고 있었는데, 누군가 필자의 뒷덜미를 덩씩 움켜 잡는 것이 아닌가? 바로 고 미승우 선생이었다.

"바로 너구나? 그러지 않아도 애들이 표를 사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뭘 바쳐야 표를 살 수 있다고 해서 누가 그런 짓을 하는가? 찾았는데...."

당시, 고 미승우 선생님은 과학관의 정식 직원이 아니고, 임시직원으로 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고인이 남산의 막강한 박창근을 겁도 없이(?) 잡은 것이다. 그리고 필자를 과학관 속직실 한 귀퉁이에 끌고 가,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필자는 무릎을 꿇는 수치보다는 두 손을 치켜들고 있는 벌을 택했다.(후에 고인이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재직하고 있을 때, 이 옛날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인은 과학관의 입장료를 사기 위해서는 어떤 꼬마에게 딱지나, 구슬을 상납해야 했었다는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이 필자였음을 알고, 우연한 인연을 감격해 했다.)

하여간, 필자는 과학관의 직원(고 미승우 선생)에게 잡혀, 속직실에 끌려가 벌을 서는데, 이 사실을 부하들이 알면, 필자를 구출해 줄 것이고, 고 미승우 선생은 죽은(?) 목숨인데, 밖의 부하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벌을 서고 있는데, 마침 고 정영호 박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속직실에서 벌을 서고 있는 필자를 발견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